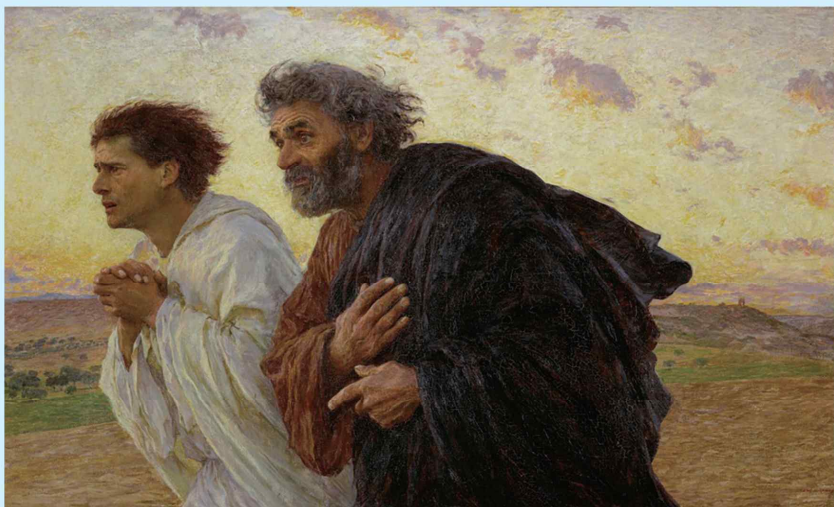




주님 부활 대축일(4월 20일)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요한 20,1-9)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

동이 틀 무렵 두 남자가 돌판을 가로질러 급히 달려가고 있다.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으로 인해 그들이 서둘러 어디론가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과연 어디로 달려가고 있을까? 앞에 있는 청년은 하얀 옷을 입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으며,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있다. 그는 누군가 말이라도 걸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 뒤에 있는 중년의 남자는 검은색 겹옷과 엉클어진 머리와 덩수룩한 수염과 웅장한 눈빛으로 말미암아 장례를 치룬지 얼마 안 된 사람처럼 보인다. 그의 놀란 눈빛과 이마와 눈가에 있는 주름에서 그의 걱정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손짓으로 ‘내 마음에 묻어 둔 사랑하는 분은 어디에 계시るか?’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 그림의 제목이 그 의문을 한순간에 풀어준다. 이 작품은 19세기 스위스 화가 외젠 뷔르낭(Eugene Burnand, 1850-1921)이 그린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다. 성경은 간단히 기술했지만 화가는 요한과 베드로의 심정까지 묘사했다. 사랑하는 스승을 잃고 슬퍼하는 요한은 눈물을 흘리면서 스승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교회를 책임졌던 베드로는 스승을 잃고 걱정에 휩싸인다. 예수님의 부재는 요한에게는 슬픔이었고, 베드로에게는 근심이었던 때문이다.

작가 뷔르낭 | 1898년, 캔버스에 유채, 82x134cm, 오르세 미술관, 프랑스.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환호송으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이 참으로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 주님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 당신 지혜는 놀라운 일 이루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2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4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5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6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7 예수님의 얼굴을 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8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9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 20,2)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한 20,9)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님 부활 대축일은 우리에게 분명 부활의 무임승차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 후 부활의 은총 속에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제자의 길을 분명하게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부족한 능력과 그에 따른 결과가 십자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과 무관한 가난도 십자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좋지 못한 성격이 십자가이고, 어떤 이에게는 도박과 술에 중독된 가족들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마음 깊이 자리 잡은 미움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활의 은총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끝인 죽음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뒤를 이어 부활할 차례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여러분 모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생명의 말씀 써보기

[요한 20장 9절]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 **아픈이를 돌봄** ▶ 4월 5-6일 병자들과 보건 분야 종사자의 희년 일정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우리 공동체 속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미사 중에 기억하기
- ② 우리 공동체 속 아픈 이들을 방문하여 위로와 함께 기도하기

내 삶 속에서

- ① 아픈 모든 이들을 위해 식사 후 기도로 병자를 위한 기도 바치기 (7페이지 참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30번 “예수 부활하셨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